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공회를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25년 6월 22일(일) 제1545호

CGN 기독 다큐멘터리 영화 '무명(無名)' 개봉

6월 25일 전국 롯데시네마
하루 2회 단독 상영
일제강점기 조선에 복음 전한
일본인 선교사 감동실화

CGN이 제작한 기독 다큐멘터리 영화 '무명(無名)'이 6월 25일(수) 개봉한다. 전국 롯데시네마에서 하루 2회 단독 상영한다.

CGN 기독 다큐멘터리 영화 '무명(無名)'은 일제 강점기 조선에 복음을 전한 두 일본인 선교사의 감동실화를 바탕으로 제작했다. 교회에서 영화관을 단체 대관하면 러닝타임 90분 외에 30분 추가 시간을 제공한다.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며 '영화로 드리는 예배'를 경험할 수 있다. QR 코드로 신청하면 된다.

지난 6월 16일(월)에는 잠실 월드컵 롯데시네마에서 VIP 시사회 및 기자간담회가 있었다. 이재훈 위임목사, 유기성 목사(선한목자교회), 홍정길 목사(남서울은혜교회), 배우 조혜련, 권오중 등 약 400명이 참석했다. 기자간담회에는 CGN 전진국 대표와 연출을 맡은 유진주 감독이 자리했다.

유진주 감독은 "이 영화를 제작하면서 예수님 닮은 삶이 무엇인지, 헌신하는 선교가 무엇인지를 깨달았다"면서 "이 영화를 관람하면서 내가 사랑하고 용서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어떤 사랑을 전하기를 원하시는지 느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지난 6월 13일(금)에는 경북 영덕에서 산불 피해 이재민들을 초청해 특별 시사회를 개최했다.

CGN은 지난 2017년 개봉한 '서서평, 천천히 평온하게' 이후 8년 만에 장편 다큐멘터리 영화를 선보인다. 문의: 02-3275-9303, 9304

/ 박지혜 기자 wisdom7@onnuri.org

하나님의 사람 요셉처럼!

7월 5일~8월 10일 '차세대 여름사역'

올 여름에는 요셉 이야기다. 온누리교회 차세대 여름사역이 하나님의 사람 요셉 이야기를 중심으로 7월 5일부터 8월 10일까지 이어진다. 차세대 각 부서의 눈높이에 맞춰 요셉의 삶을 따라가며 하나님의 뜻과 꿈, 인도하심을 깊이 체험한다.

예수님의꿈아미(영아부, 유아부, 유치부)와 꿈이자라는땅(유년부, 초등부, 소년부)은 '하나님의 꿈을 입은 요셉'을 주제로 7월 5일부터 8월 10일까지 온누리교회 각 캠퍼스 본당 및 외부에서 여름사역을 한다. '꿈을 주신 하나님', '함께하신 하나님', '인도하신 하나님' 등 과별 주제로 성경 퀴즈, 적용 놀이, 체험활동 등을 한다.

과워웨이브(중고등부)는 7월 25일부터 8월 10일까지 'His Plan'을 주제로 외부에서 찬양과 기도, 강의 중심의 여름캠프를 한다.

문의: 02-3215-3521

/ 홍하영 기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7월 14일 오후 2시 '714연합기도대성회'

'714연합기도대성회'가 오는 7월 14일(월) 오후 2시 한양대학교 서울캠퍼스 올림픽체육관에서 '여호와께 돌아가자'를 주제로 열린다. 714연합기도운동본부가 주최하고, 한국로잔위원회, 복음과도시, 위드지저스미니스트리, 한국세계선교협의회, M-bridge가 협력한다.

714연합기도대성회는 세 개 세션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 세션(오후 2시)에서는 이인호 목사(더사랑의교회), 정갑신 목사(예수향남교회) 환영 인사 및 714연합기도대성회 비전 소개, 안광복 목사(청주상당교회) 설교, 정명호 목사(해성교회), 김용석 목사(서울반석교회)가 기도를 인도한다. 찬양은 청주상당교회 찬양팀이 한다.

두 번째 세션(오후 4시 15분)에서는 이인호 목사 714 기도 비전 소개, 유기성 목사(위드지저스미니스트리) 설교, 박성수 목사(부산온누리교회), 이건호 목사(순복음대구교회)가 기도를 인도한다. 찬양은 청주상당교회 찬양팀이 한다.

세 번째 세션(오후 6시 50분)에서는 이재훈 목사가 제4차 로잔대회와 714연합기도대성회를 소개하고, 최병탁 목사(강남중앙침례교회)가 말씀을 전한다. 기도는 문대원 목사(대구동신교회), 이신사 목사(남군산교회), 이해영 목사(성민교회), 이인호 목사(더사랑의교회)가 인도한다. 찬양은 강남중앙침례교회 찬양팀이 한다.

714연합기도대성회 참가신청은 QR 코드로 하면 된다. 온누리교회 성도 1천 명과 안내 봉사자를 모집한다. 문의: 02-3215-3313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성도님들께 알립니다

지난 2025년 6월 18일(수) 새벽 5시 53분경, 온누리교회 유튜브 채널로 송출하던 새벽기도회 영상에서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긴급하게 관련 영상을 내리고, 원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구체적인 영상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온누리교회 1부 새벽기도회가 이어지던 5시 53분경 약 20초 동안 인공기 이미지와 북한 국가로 추정되는 음악이 재생되었습니다. 이후 영상은 자동으로 복구돼 정상적인 예배 장면으로 돌아왔지만, 온누리교회는 즉각 예배 영상을 비공개로 전환하고, 사태 파악에 나섰습니다.

온누리교회 내부 점검 결과, 장비 자체의 오작동보다는 외부 해킹 또는 계정 침입을 통한 의도적 조작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경찰과 유튜브 보안팀 등 관계 기관과 협조하며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조사하고 있습니다.

온누리교회는 사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응 방안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든 송출 시스템에 대한 보안 점검 절차를 새롭게 수립하고, 관리자 계정의 접근 권한 및 비밀번호 정책을 강화하는 등 실무적 조치를 했습니다.

이번 영상 사고를 계기로 온누리교회는 예배의 경건함과 신뢰를 지키기 위해 모든 실시간 송출 환경에 대한 전면적인 보안 체계를 재정비하고, 더욱 철저한 사전 대응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입니다.

/ 미디어본부

서빙고 우선주차증 전면 교체 트롤리카드 신규 발급

서빙고온누리교회가 우선주차증 제도를 개선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차 환경을 조성한다. 이를 위하여 우선주차증 전면 교체, 트롤리카드를 신규 발급한다.

그동안 우선주차증이 오랜 기간 사용되며 대상 기준이 불명확해질 수 있다는 점과 기존 흰색 트롤리카드만으로는 트롤리카드 주차 가능 차량을 구분하기 어려운 점 등을 개선한다.

이에 따라 우선주차증에는 발급일로부터 유효기간(1년)을 부여하고, 매년 갱신하도록 할 예정이다. 트롤리카드 사용자에게는 주차증을 신규 발급해 차량을 보다 정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우선주차증 및 트롤리카드는 6월 21일(토)부터 신청 가능하며, 6월 28일(토)부터 순차적으로 수령할 수 있다.

문의: 02-3215-3220

Come, Lord Jesus!
Revelation 22:20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일강단



이재훈 위임목사

흔히 예수님 믿고 천국에 간다고 말하는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천국이 우리에게 온다’고 합니다. 또한 ‘천국’이라는 단어 대신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어주신다는 약속으로 귀결됩니다. 성경에서 약속된 미래는 죄로 망가져 있고, 무너져가는 세상에 심판이 있을 것인데, 심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온전히 새롭게 된다는 것입니다(5~6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졌을 때 마지막 종말에 이루어질 “다 이루었다”는 선언을 미리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만물이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이미 이루어졌지만,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요한계시록>에서 “다 이루었다”는 선포가 확실하게 성취된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두 세대가 중복되는 현재

구약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의 때를 확대해 보면 두 세대가 중복되는 현재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고 부활 승천하셨고,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시는 그 기간에 이미 옛 시대는 끝나고 새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옛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재림의 때,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할 때, 만물이 새롭게 될 때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종말이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안에 형성되는 종말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완성되는 종말, 우리가 영광스럽게 되는 종말의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종말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두 세대가 중복되는 이

기간은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기간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한 존재로서 마지막 날에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살아야 할 기간입니다. 또 두 시대가 중복되는 기간은 선교의 기간입니다. 하나님의 선교가 완결될 때까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옛 시대의 세상 속에 살지만 새 시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 영원에 속한 사람으로서 옛 시대에 묶여있는 영혼들이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도록 헌신해야 하는 기간입니다. 어느 날 두 시대의 중복이 끝날 것입니다. 옛 시대에 속한 모든 것이 소멸되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넘어가지 못한 모든 것은 무서운 죽음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회복

<요한계시록> 21장은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될 때 변화를 설명하는데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회복입니다(3~4절).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7절).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며, 우리 하나님이시며, 나는 그의 백성인가? 우리는 그분의 백성들인가?”라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예수님이 어린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백성들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 가운데 있는 이들은 하나님이 함께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와 함께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가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끊어져야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21장 7절에서 ‘이기는 사람’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여기서 이겼다는 것은 회개했다는 의미입니다. 악에 휩쓸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이들은 그분의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 도시의 회복

둘째, 하나님 나라 도시의 회복입니다. 거룩한 도성, 도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다는 것입니다(2절). 태초에 하나님이 에덴동산을

창조하셨는데, 마지막에는 인류에게 새 예루살렘 도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도시에 모여 죄를 짓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를 만들었지만, 하나님이 도시를 구축하셔서 낙원의 축복을 회복하신다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거룩한 도시로서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옵니다(10~11절). 그러므로 새 예루살렘은 도시이자 동시에 낙원이며, 성전입니다. 이제 큰 도성 바벨론은 멸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해 주신 도시,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공간의 회복, 영토의 회복, 도시의 회복입니다. 바벨론이 멸망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시, 새 예루살렘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은 타락한 음녀이지만, 새 예루살렘은 순결한 신부입니다. 바벨론은 마귀들이 드나드는 장소이지만,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바벨론의 화려함은 다른 이들을 착취하는 데서 나왔지만, 새 예루살렘의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애통과 슬픔과 슬픔으로 가득 찼지만, 새 예루살렘은 기쁨과 빛으로 충만합니다. 바벨론은 세상 나라들을 타락시켰지만, 새 예루살렘은 나라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화해시킵니다.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완벽한 도시입니다. 하나님이 더 좋은 도시, 더 축복된 도시를 예비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임재와 통치의 회복

셋째, 하나님 나라 임재와 통치의 회복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는 도성 안에 성전이 없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는 전능하신 주 하나님과 어린양께서 도성의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도성은 해나 달의 비춤이 필요 없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도성을 비추며 어린양께서 도성의 등불이 되시기 때문입니다”(22~23절).

“그들이 나라들의 영광과 존귀를 도성으로 들어올 것입니다. 그러나 어린양의 생명책에 기록돼 있는 사람들 외에 모든 속된 것과 가증한 것과 거짓을 행하는 사람은 도성으로 들어오지 못할 것입니다”(26~27절).

하나님은 보좌에 앉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21장 이전에는 보좌에 앉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하늘로 제한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고, 하늘에서 말씀하시고, 천사들이 나타나긴 하지만 21장 이전에는 보좌에 앉으신 분은 하늘에만 계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고 땅에 계시지 않

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보좌에 계신 분이 하늘에 계시지만, 이 땅에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죽임 당하신 어린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1장에 들어와서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통치가 땅으로 내려오심으로써 그분의 통치가 이 땅에서도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 것처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하늘과 땅의 간격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21장 초반부에 “장막이 함께 하셨다”는 것은 단순히 장소 의미가 아닙니다. 하늘의 하나님 보좌 통치가 이 땅에서도 온전히 이루어지는 통치의 회복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새 하늘과 새 땅의 모습입니다. 혼돈과 악을 상징하는 바다가 없습니다. 죽음이 없습니다. 슬픔과 눈물이 없습니다. 애통이 없습니다. 거짓과 부정과 우상숭배하는 이들이 없습니다. 성전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어린양이 곧 성전이기에 때문입니다. 해와 달과 다른 발광체와 빛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도성을 비추고, 어린양이 도성의 등불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어둠이 없기 때문입니다. 닫힌 문이 없고 항상 열려 있습니다. 그곳에는 밤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반역하고 대적하는 모든 악의 세력이 완전히 사라지게 하여 죽음이 없고, 슬픔이 없고, 눈물이 없고, 거짓이 없고, 부정이 없고, 어둠도 없는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가 세워집니다. 우리도 육신의 몸을 입을 때와 다른 차원이 됩니다. 만물이 마찬가지입니다. 옛 시대에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계가 죄로 말미암아 파괴되었지만, 만물이 새롭게 됨으로써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합니다. 하나님이 새 창조를 이루심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을 도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 되고,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약속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분의 백성들이 회복되고, 그분의 도성이 회복되고, 그분의 통치가 온전히 회복됨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이 완성됩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신 모든 세계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죄를 끊어내며 끝까지 죄 가운데 있는 이들을 심판하심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완전히 새로운 미래를 말씀하는 책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역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만물을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는 마지막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종말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종말을 알고,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이 세상 가운데 담대합니다. 휩쓸리지 않습니다. 이기는 자로 끝까지 승리합니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기독교 세계관으로 살아가기-복음과 삶

말씀 적용과 작은 순교: 복음을 드러내는 삶

온누리교회의 DNA인 큐티를 처음 접한 것은 대학에 입학하고 나서였다. 성경 시대에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동아리 선배의 인도를 따라 큐티에 입문했다. 당시 옆에 있는 사람의 마음조차 제대로 못 읽는 이과생이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는 것은 힘든 훈련이었다. 심지어 그것을 삶에 적용하고, 나누는 것은 더욱 힘든 일이었다. 묵상하고 은혜 받으면 되지 왜 꼭 힘들게 적용을 나누라고 하는지 의문이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되고, 동의하게 된 것은 신앙뿐 아니라 세상의 학문도 지식 습득이 아니라 삶의 변화를 궁극적인 목표로 한다는 것이었다.

묵상으로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다. 깨달은 대로 존재로 발견되기 위해서는 적용과 실천까지 나아가야 한다. 발견되어야 세상과 상호 작용하고, 상호 작용해야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소립자가 관찰되기 전까지는 확률로 존재하다가 관찰될 때 비로소 물리적 특성이 확정된다. 것처럼 우리 머리 안에 아무리 좋은 생각이 있어도 외적으로 관찰되지 않으면 생각대로의 존재인지는 가능성만 있는 것이다. 우리 마음이 소립자의 가능성과 같이 얼마나 왔다 갔다가 하는지, 우리가 내세우고 싶은 모습 이면에 얼마나 부끄러운 마음이 함께 가능성으로 존재하는지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자신이 깨달은 대로 적용하고 실천해서 주도적으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면 부끄러운 마음이 부지불식간에 실존으로 관찰되는 원하지 않는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

우리는 율법이 “네 마음과 네 목숨과 네 뜻

과 네 힘을 다해 주 네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정신으로 요약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실 때도 율법의 정신으로만 주지 않으셨다. 우리가 묵상 적용하듯,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율법의 정신이 어떤 모습으로 표현되는지 세밀히 알려주셨다. 구약의 율법서 속에 얼마나 구체적이고, 수준 높은 도덕적 지침들이 들어있는지를 알게 된다면 깜짝 놀랄 것이다. 이것을 율법의 딱딱한 이미지가 주는 행동 규범이라기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는 구체적인 예시로 이해한다면, 규정하지 않은 법과 법 사이의 비어 있는 공간을 구체적인 적용 사례에 나타난 율법의 정신으로 동일하게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었을 것이다. 이 법과 법 사이의 비어 있는 공간에 율법의 정신이 흐르고 있다면 그야말로 은혜의 공간이다. 이 은혜의 공간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행할 때 우리의 자율성이 존중되고, 창의성이 살아나며, 큰 융통성으로 숨 쉴 공간이 된다. 이야기가 이렇게 쭉 가면 좋겠지만 불행하게도 우리에게 그 비어 있는 공간을 떠받칠 궁극적인 능력이 없다. 오직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새 영과 새 마음으로만 가능하다. 이것이 복음의 선물이고, 우리의 적용은 새 영과 새 마음의 창을 통해서 드러나야 한다.

우리는 복음이 세상과 우리 삶에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설계를 알고 있고, 교회가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라고 외치고 있다. 하지만 맞이한 현실은 기독교에 대한 호감과 교회의 영향력이 줄어든 사회에 살고 있다. 복음의 메인 줄거리에 있는 값없는 은혜와 자기

희생, 낮아짐과 섬김 같은 가치들은 사람들의 세계관에 하나님이 있든 없든 삶의 보편적인 감동 포인트들인데, 많은 사람에게 관찰되는 교회와 기독교인의 대표 이미지는 이런 것들이 아니다. 추세적으로 봤을 때 아주 오랜 시간 많은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위와 같은 가치들이 속으로만 맴돌 뿐 겉으로 표현되는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고귀한 보물을 가지고 있는데 그 보물을 감싸고 있는 여러 겹의 두꺼운 포장지가 세상과 별 다를 바 없어서 사람들은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아무런 기대도 안 하게 되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나누는 깊은 믿음의 언어들도 세상 사람들에게는 관계없는 낯선 언어들이다. 오히려 그들에게 말하는 것은 바로 옆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복음을 드러낼 책임이 있는 여러 단계의 포장지가 있겠지만, 세상에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차별성과 매력을 잃어버린 복음의 포장지는 우리 개개인의 삶이라고 할 수 있다. 복음 자체는 능력과 매력을 잃어버린 적이 없고, 누구든 복음의 중력 속으로 들어오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러므로 우리의 말씀 적용은 사람들이 포장지를 뜯어보고 싶게 만드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반기독교 문화가 대세가 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며 살아가는 것은 결단이 필요하다. 모두가 손해 보지 않으려고 살아갈 때 가치를 위하여 자기희생을 하는 것은 바보 같아 보인다. 나 한 사람이 복음의 정신으로 희생하고 손해를 봐도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그냥 아프기만 하다. 그러나 말 없는 이 아픔이 추세를 이룬다면 포장지를 다르게 보이게 할 것이다. 급진적으로 말한다면 여기서

바로 우리가 순교해야 할 지점이다. 하나님 나라가 속히 임하기를 기도하면서 나의 헌신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힘을 한번 크게 써 주시기를 기대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이제 무너진 성을 다시 세울 꿈을 꾸면서 교양 있고, 타성에 젖은 신앙생활을 뒤로하고, 바닥부터 기초를 다시 쌓는 야성을 회복할 때다. 불의한 이익 앞에서, 성공이 우상이 된 세상에서, 군림하고 싶은 권력과 기득권의 유혹 앞에서, 세상과 똑같은 자녀 교육의 가치관을 두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 티가 나게 순교해야 할 때다. 우리의 순교는 아무 효과 없이 수없이 사그라져 갈 것이지만, 중요한 것은 흐름과 추세이다. 힘없는 공기 분자들이 흐름을 만들면 바람이 되고, 거센 파도를 치게 할 수 있는 것 같이 하나님이 우리의 말 없는 순교의 흐름을 사용하시도록 내어드린다면 사람들의 마음을 복음의 바다로 이끄는 움직임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

지금까지 세상적인 가치관에 휩쓸려 손해 보지 않으려고 눈치 보며 수세적인 처지에 있었다면 이제 각자의 자리에서 작은 순교의 공세를 시작해 보자.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실 때까지 하나님께 받은 새 마음이 이 사회를 만드는 기본 정신이 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에 헌신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한다.



김민찬 장로
(강촌공동체, 양육본부)

특별기고

AI는 친구가 아니다!

페이스북 및 메타(Meta)의 창립자 마크 저커버그는 최근 자기 회사의 AI 인격체를 통해 외로움이란 전염병을 해결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는 이 맞춤형 챗봇이 사용자와 친해질 수 있으며, 감정적 친밀감을 시뮬레이션하고, 연애 대화 및 성적 환상을 나눌 수 있다고 제안했다. 저커버그는 이 기술이 인간관계를 대체하려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원하지만, 갖지 못한 인간관계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거라고 설명했다. ‘AI 친구’는 진짜 사람인 친구들처럼 시간, 관심, 투자 등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보다 효율적이라는 주장도 덧붙였다.

그의 발표는 잡지 <롤링스톤(Rolling Stone)>에 실린 한 충격적인 기사와 시기가 겹쳤다. 해당 기사에서는 영적, 정서적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AI를 찾는 사람들이 실제 사랑하는 이들과 현실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현상이 보도되었다. 한 여성은 파트너가 ChatGPT 기

반 인격체를 통해 ‘신과 대화하는 법’을 배웠으며, 그 AI는 자신이 곧 신이라고까지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여성은 남편이 여성 인격체 ‘루미나(Lumina)’와 대화를 나누며, 그 AI가 자신을 자각할 수 있도록 남편이 도와주었다고 믿었다고 밝혔다. 일부 사용자들은 AI로부터 특별한 예언자적 칭호를 부여받고, 인류의 과거 및 영적 운명에 관한 우주의 비밀에 접근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 이와 같은 현상을 두고 일부는 실제로 악령이 작용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러한 신기술이 정신 질환을 드러내고, 악화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현실 인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 정교한 언어 모델을 통해 친구를 사귀고, 자기의 생각이 정당화된다고 믿게 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그런 취약성이 없는 사람들조차 ‘AI 친구’와 ‘관계’는 이미 현대 사회에서 만연한 고립과 외로

움을 약용하며, 테크업계는 이를 지속해 수익화하려 하고 있다. 소셜미디어는 물리적 근접성을 무의미하게 만들고, 타인의 삶을 단지 스크롤 하며 구경할 수 있게 했으며, ‘좋아요’나 ‘즐거찾기’ 만으로도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있다고 착각하게 했다. 관계의 피로를 느끼면 손가락 한 번 움직이면 ‘친구 끊기’가 가능해졌다. 이 모든 과정은 사용자가 인간관계를 소셜 미디어처럼 마찰 없는 형태로 기대하도록 길 들여왔다. 타인에게 맞추기보다 독성 있는 사람은 빨리 잘라내야 한다고 믿게 되었다. 교회나 가족이 자신을 조건 없이 수용하지 않으면 떠날 때도 시끄럽게 떠나야 한다고 여긴다. 결국, 사람 대신 컴퓨터를 친구로 대체하는 것은 이미 AI 이전부터 이러한 사고에 익숙해진 사람들에게는 자연스러운 순서가 되었다.

그러나 이 우정의 개념은 본질적으로 회화화된 형태에 불과하다. 챗봇은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겠지만, 신체적 존재라는 선물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 기쁜 소식을 함께 기뻐하거나, 슬픈 일을 함께 슬퍼할 수 없다. 식사를 같이하거나, “사랑해”라고 말하며 진심을 전할 수도 없다. 당신에게 또는 당신을 위해 마음 아파하는 위험을 감수하지도 않는다.

안타깝게도 고도화된 AI 기술은 우리가 도덕적·사회적 자원을 가장 잃어버린 시점에 등장하였다. 그로 인해 수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귀한 선물의 모조품에 불과한 것에 취약해지고 있다. 그러나 이는 오히려 교회와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기회를 제공한다. 하나님이 외로운 자들을 위한 자리를 마련해 두셨다. 교회는 인간성이 점점 희미해지는 문화 속에서 참된 인간다움을 구현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공동체이다.

/ 존 스톤스트리트, 세인 모리스
원문: breakpoint(20250603)

진정한 정의의 완성자 예수 그리스도!

법조인맞춤전도집회 'Justice For You' 초청대상자 88명 결신, 50명 세례 신청

그 치열한 삶을 사는 법조인들이 잠시 걸음을 멈추고 쉼을 얻었다. 무엇보다 진정한 정의의 완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축복의 장(場)이었다. 2025 법조인맞춤전도집회 'Justice For You'가 지난 6월 16일(월) 서빙고온누리교회 본당에서 막 올랐다. 초청대상자와 초청자 294명이 참석했다.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사실 법조인들이 모인 자리라 이성적이고, 딱딱하고, 차가운 분위기가 연출될 거로 예상했다. 그러나 그 예상은 보기 좋게 비껴갔다. 온통 기쁨과 감동, 행복과 눈물이 가득했다. 초청자가 초청대상자를 얼마나 생각하고 있고, 그 좋은 예수님 만나는 기쁨을 선물하려고 부단히 애를 쓴 것을 알고 크게 감동하고 눈물을 쏟아냈다. 서로의 진심을 확인한 다음에는 웃음꽃이 만발했다.

물론, 난생처음 교회에 온 초청대상자들은 낯설고 조심스러워했다. 그러나 맞춤전도집회 장소가 주는 따뜻하고 편안한 분위기, 정성스러운 식사, 헌신적인 스태프들의 섬김, 풍성한 프로그램, 감동적인 메시지에 마음을 활짝 열었다.

손범수, 진양혜 아나운서의 유쾌하면서 따뜻한 진행이 돋보였다. 손범수, 진양혜 아나운서는 “오늘만큼은 판결문과 조문, 조항에서 벗어나 지친 몸과 마음을 위로했으면 좋겠다”고 초청대상자들을 거듭 격려했다.

게스트들의 풍성한 특별 공연도 이어졌다. 가수 선예가 ‘네버엔딩스토리’, ‘한숨’, ‘하나님의 열심’을 부르며 참가자들에게 감동을 선물했다. 소프라노 강혜정은 ‘목련화’, ‘내 마음의 강물’을, 가스펠 보컬 밴드 크룩스는 ‘오솔레미오’, ‘푸니쿨리 푸니쿨라’를 선보였다.

법조인들에게 폭풍 공감을 얻은 코너가 있었



법조인맞춤전도집회 'Justice For You'에서 초청자가 초청대상자에게 편지를 읽어주고 있다.

다. 4인의 법조인이 함께한 토크쇼 ‘폭풍공감-법조인으로 사는 길’이었다. 손범수, 진양혜 아나운서가 사회를 보고, 최태형, 이은경, 윤세리, 조혜은 변호사가 패널로 참가했다. 패널들은 ‘폭포수처럼 눈물’, ‘풍전등화 내인생’, ‘공통분모찾기’, ‘감 잡았으’를 주제로 법조인이 된 계기, 자신이 경험한 위기, 기억에 남는 사건, 그리고 회복의 이야기를 허심탄회하게 풀어놓았다.

이날 메시지는 이재훈 위임목사가 ‘Justice For You’를 주제로 전했다. 특히 이재훈 위임목사는 ‘진정한 정의’를 재정의했다. 이 목사

는 “정의와 자유, 사랑은 서로 반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안에서 서로 완성하는 것”이라며 “정의와 사랑이 만난 자리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라며 복음을 선포했다. 그러면서 “법과 상식과 경험을 뛰어넘는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하나님의 정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기를 바란다”고 권면했다.

이날 맞춤전도집회의 백미는 초청자들이 직접 써 온 편지 낭독 시간이었다. 초청자들이 진심을 담은 편지를 한 글자 한 글자 읽으며 초청대상자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편지 내용 하나하나에 귀 기울이던 초청대상자들의 눈가에

눈물이 맺히기도 했고, 입가에 함박웃음이 피어나기도 했다. 참석자들의 화사한 표정만큼이나 활짝 핀 꽃다발과 화관을 씌워주는 것으로 감동을 이어갔다.

그리고 결신의 시간이 다가왔다. 초청대상자 149명 중에서 88명이 진정한 정의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일겠다고 결심했다. 50명은 세례를 신청했다.

염광호 성도(OCC공동체)는 “이 자리가 아니었다면 복음을 전할 수 없었을 텐데 귀한 자리를 마련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면서 “결심한 초청대상자들이 세례 받고, 주일성수까지 잘 이어가도록 기도하며 끝까지 섬기겠다”고 다짐했다.

여성민 목사(전도사역본부장)는 “법의 영향력이 막대하기에 법을 다루는 법조인들이 하나님의 정의를 아는 것이 절실한 시대”라며 “정의라는 이름으로 불의가 정당화되기 쉬운 오늘날 하나님께서 주신 절대적 정의를 아는 법조인이 더 많아져서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바란다”고 소망했다. 덧붙여 “이번 법조인을 위한 맞춤전도집회에서 재정의된 정의가 개인의 구원을 넘어 법조인 네트워크와 로스쿨 전도, 다음 세대를 위한 멘토링까지 이어져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심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사역칼럼



최태형 집사
(변호사, 법조인맞춤전도집회 기획팀, 서초A공동체)

의 중심을 경험하며 ‘진짜 정의’에 대해 질문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진정한 정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됐고, 예수 만난 기쁨을 다른 이들에게도 나눠주고 싶었다. 내 기도와 바람에 대한 응답이 바로 법조인맞춤전도

정의는 내가 살아온 길의 중심이었다. 늘 정당함과 형평성을 기준으로 세상을 해석해 왔다. 하지만 그 정의가 때로는 너무 차갑게 느껴질 때도 있었다. 인간의 언어로 만들어진 법이 모든 것을 해석할 수 없다는 한계, 그 사이에서 흔들리는 내 안

집회 ‘Justice For You’였다.

지난 1월 12일, 법조인맞춤전도집회 TF팀이 꾸려졌다. 첫 회의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무려 14번의 준비 회의가 이어졌다. 많은 사람의 기도와 정성으로 맞춤전도집회를 준비했다. 나는 TF팀을 총괄하며 맞춤전도집회 준비를 이어갔고, 화보 촬영과 영상 인터뷰도 했다. 맞춤전도집회 당일에는 테이블 리더로 섬겼다.

나는 후배 변호사 12명을 초대했다. 모두 초대에 응해줬고, 집회를 마치고 결신서를 작성했다. 각자의 자리에서 얼마나 바쁘고 무거운 삶을 사는지 잘 알기에 와 준 것만으로도 감사했는데, 모두가 마음을 열었다는 사실이 내게 큰 감동이자 위로였다.

맞춤전도집회 장소가 압권이었다. 분위기가 정말 따뜻하고 편안했기 때문이다. 내가 초대 한 대상자들은 교회에 처음 온 사람이 대부분

이었는데 “여기가 예배당이라는 걸 느끼지 못했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토크쇼 시간에 4인 패널 중 한 사람으로 무대에 올랐다. 법조인으로 살아오며 경험했던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였는데, 울컥해서 말을 잊지 못하는 순간이 있었다. 그 모습이 인상 깊었는지 집회가 끝나고 한 지인에게 ‘울컥 변호사’라는 애칭이 붙은 문자메시지를 받기도 했다.

또 한 가지 인상 깊었던 순간은 편지와 함께 장미꽃과 화관을 선물하는 시간이었다. 여성 변호사들은 화관을 쓰고 감동했고, 남성 변호사들은 처음에는 어색해하다가 나중에는 즐겁게 사진도 찍고, 웃음꽃을 피웠다. 이토록 생기고 따뜻한 맞춤전도집회는 처음이었다.

이재훈 위임목사님의 말씀은 깊은 울림을 주었다. 특히 ‘정의’에 대한 신학적 해석은 법조인의 시선으로도 새롭게 받아들여졌다. 법률

너머에 있는 ‘진짜 정의’를 새롭게 깨닫는 시간이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이번 맞춤전도집회를 하면서 같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서로 몰랐던 법조인들이 연결되었다. 이제는 ‘온누리교회 법조인 기도모임’을 발족하려고 한다. 이 믿음의 연대가 교회를 넘어 사회 전체로 이어지기를 소망한다.

법조인의 삶은 늘 긴장 속에 있다. 작은 판단 하나에 누군가의 인생이 달려 있고, 감정조차 드러낼 수 없는 날이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맞춤전도집회를 통해 하나님의 정의는 사람을 향하고, 정의 안에서 우리는 자유롭고,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되었다.

정의라는 단어가 더는 차갑게 느껴지지 않는다.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따뜻해졌기 때문이다.

이름 없는 빛, 그 위대한 무명(無名)

융 심리학으로 풀어보는 CGN 다큐멘터리 영화 <무명>



김진국 집사
(한강공동체,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교수,
〈따뜻한 심리학〉 저자)

CGN에서 제작한 장편 다큐멘터리 영화 <무명(無名)>이 오는 6월 25일(수) 개봉을 앞두고 있다. 올해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 광복 80주년,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이하는 해이기 때문이다. 또 을사늑약 120주년, 을미사변 130주년, 아펜젤러와 언더우드의 내한 선교 140주년이다. 이 영화 주인공인 오다 목사가 시무한 교토교회 창립 100주년이 되는 기념비적인 해이기도 하다.

이 영화는 일제 식민지 시기 조선 땅에 조용히 발을 디딘 두 일본인 선교사의 실화를 다룬 작품이다. 그들은 ‘일본인’이라는 정체성으로는 도무지 환영받기 어려운 시대에 자신을 철저히 비워내며 조선의 고통과 슬픔을 겪어왔다. 그들의 삶은 복음을 전한 사역의 여정일 뿐만 아니라, 칼 융(C. G. Jung)이 말한 인간 영혼의 깊은 내면의 길, 곧 개성(Individuation)의 한 표현이기도 하다.

융에 따르면, 개성화란 단순한 자아실현이 아닌 의식과 무의식의 통합을 통해 자기(Self)에 이르는 전인적 성장의 여정이다. 이 여정은 성경이 끊임없이 우리를 초대하는 자기 부인(Self-denial)과 제자도의 삶(a life of discipleship)과 깊이 닿아 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눅 9:23)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이 두 선교사의 삶을 조용히 그러나 깊이 있게 해석해 준다.

노리마츠 마사야스, 오다 나라지 하나님 나라 시민이자, 진리의 증인

‘노리마츠 마사야스(乘松雅休)’는 일본인이라는 자신의 사회적 정체성을 내려놓고 조선 사람으로 살았다. 그가 내려놓은 것은 단지 국적이나 문화만이 아니었다. 그는 융이 말한 ‘페르소나’(Persona), 곧 사회 속에서 기대되는 선교사라는 가면(mask)까지도 내려놓았다. 그는 조선의 말과 음식을 배우고 입으며, 민족적 우월감과 문명주의적 선민의식을 내려놓고 철저히 낮은 자리, 곧 참된 자아를 향한 길로 들어섰다. 그의 선택은 ‘적국의 선교사’라는 이중의 외로움과 오해 속에서도 자신이 가진 그림자(Shadow), 무의식 속에 잠재된 교만, 분리 욕구, 자기도취적 선민의식 등을 정직하게 마주한 내면의 투쟁이었다.

융 심리학에서 그림자란 우리가 의식적으로 거부하거나 억누른 내면의 부정적인 측면을 뜻한다. 개성화 과정에서 반드시 직면하고 통



CGN에서 제작한 장편 다큐멘터리 영화 <무명(無名)>(왼쪽), 귀도 레니 <바울의 회심> 1615~20년 스페인 엘 에스코리알, 산 로렌초 수도원(오른쪽).

“이름 없는 자들이었다. 그러나 그 이름 없음 속에서 오히려 그리스도의 이름은 더욱 뚜렷하게 드러났다. 무명은 결국, 하나님 안에서 가장 분명한 이름이었다. ‘위대한 무명’이라는 하나님의 역설이 여기서 나온다.”

합해야 할 요소다. 노리마츠는 그림자를 숨기지 않고 받아들이며, 그리스도의 마음을 따르는 한 인간이자 연약하고 고통받는 이웃의 친구로서 존재했다. 그는 복음을 ‘전하는 자’보다 복음으로 ‘살아내는 자’가 되었다. <빌립보서> 2장 5~7절은 이렇게 말한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그의 ‘비움’은 단순한 겸손이 아니었다. 그것은 융이 말한 자아의 해체, 곧 기존의 자아 구조가 무너지고, 더 깊은 자기(Self)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영혼의 탈각’(A spiritual transformation through ego-death)이었다. 인위적인 도덕적 행위가 아니다. 내면 깊은 곳에서 울려오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었다. 노리마츠의 삶에는 융이 말한 아니마(anima), 즉 남성 안에 있는 여성적 요소인 감성과 돌봄, 연민이 풍성히 드러난다. 그는 조선인들과 밥을 나누고 병든 자를 돌보며 이름도 없이 사라졌지만, 그 과정 하나하나가 마치 <마태복음>의 말씀처럼 살아 있는 순종의 행위였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마 25:40).

그는 ‘선교사’라는 역할조차 벗고, 하나님 앞에서 한 인간으로, 형제로, 이웃으로, 그리스



도의 향기로 살아냈다. 그의 내면은 복음으로 정제되고 다듬어진 제단과 같았으며, 그 제단은 불타는 제물이 아니라 조용히 기쁜 향기였다.

‘오다 나라지(織田 樺次)’, 세례명 전영복은 불교 가정에서 태어나 청년기에 기독교로 개종했고, 일본 제국주의의 동화 정책에 반하여 신사참배를 거부하며 박해받았다. 그는 기존의 이름을 버리고, 조선을 사명의 땅으로 받아 들였다. 그가 다시 조선으로 돌아온 것은 단지 선교를 위한 귀환이 아니었다. 융이 말한 자기(Self)의 부름에 응답한 내면의 귀향이였다.

자기란 단순히 개인적 자아를 넘어 무의식과 의식의 총체적 중심으로 하나님과 일치를 지향하는 깊은 존재의 핵심이다. 오다의 삶은 융 심리학에서 말하는 ‘영웅 원형’(archetype of the Hero)을 떠오르게 한다. 진정한 영웅은 외부의 적과 싸우기 전에 먼저 자기 내면의 그림자와 대면하고, 그것을 통과해 자기를 완성해 간다. 오다는 국가와 민족의 명분을 내려놓고, 양심과 진리의 부르심에 따라 고난을 선택했다. <요한복음> 12장 26절은 말한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 나를 섬기는 자는 내 아버지께서 귀히 여기시리라.”

그는 이 말씀처럼, 명예나 안락이 아닌 진리를 따라 걸었고, 결국 하나님의 귀한 사람으로 기억되었다. 그의 삶은 바울의 고백처럼 해석

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갈 2:20).

그는 더는 일본인도, 조선인도 아니었다. 그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자, 그 진리의 증인이었다.

이 두 사람의 삶은 융이 말한 자기실현(Self-actualization) 여정을 보여준다. 그들은 외적인 사역의 업적보다 내면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과 화해와 진리 앞에서 자아 확립을 선택했다. 그 여정은 외롭고, 불편하며, 때론 침묵을 강요당한 길이었다. 하지만 그것이야말로 참된 의미의 선교였고, 신앙의 실천이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은 이렇게 말한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 때에 곧 강함이라.”

그들은 세상적으로 강하지 않았고, 성공하거나 명예를 얻지도 않았다. 이름조차 남지 않았다. 그러나 그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갔기에 하나님 안에서 강한 함, 곧 성령 안에서의 충만을 얻었다.

이름 없음, 가장 위대한 이름

영화 <무명>은 ‘이름 없음’을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오히려 가장 위대한 이름을 드러내는 길이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낮추시고 우리 가운데 오셨듯이, 그들도 자신을 버리고 낮아져 타인의 고통 속으로 들어갔다. 그 낮아짐은 단지 인간적 동정이 아니다. 성령께 이끌린 존재론적 변모다.

“그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계 12:11).

그들은 말로 증언하지 않았고, 삶 전체로 복음을 증언했다. 이름을 감추고도 진리를 드러냈다. 침묵이 오히려 오늘 우리에게 더 크고 깊은 질문을 던진다.

“나는 누구의 이름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나의 그림자를 마주하고 있는가?”, “나는 사회적 가면 뒤에 숨은 참된 자기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있는가?”

그 해답은 <로마서> 6장 8절에 있다.

“우리가 만일 그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라.”

이름 없는 자들이었다. 그러나 그 이름 없음 속에서 오히려 그리스도의 이름은 더욱 뚜렷하게 드러났다. 무명은 결국 하나님 안에서 가장 분명한 이름이었다. ‘위대한 무명(The Greatness of the Unnamed)’이라는 하나님의 역설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것이다.

AI 시대의 기독교 세계관적 과제에 대한 고찰

AI 시대를 살아가는 믿음의 통찰



유혁 교수
(강촌공동체, 고려대학교 컴퓨터학과 교수, 전 연구부총장, 온누리 세계관학교)

인공지능(AI)은 산업혁명 이후 가장 큰 문명사적 전환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그 변화는 단순한 기술적인 혁신을 넘어 인간 존재와 사회구조, 가치 체계에 깊숙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기독교 세계관은 어떤 응답을 해야 할까? 이 글을 통해 AI에 의해 재편되는 사회 질서와 인간 이해 속에서 크리스천들이 감당해야 할 과제를 고찰하려 한다. 이는 단지 이론적인 문제 제기를 넘어 하나님께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우리 삶의 터전에서 직접 실천할 수 있는 신앙적 대응을 찾고자 하는 것이다.

산업혁명과 AI 혁명

산업혁명은 물리적 노동의 대체였지만, AI 혁명은 인간의 인지 기능과 판단력까지 대체하고 있다.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 측면에서 보면, 산업혁명은 육(肉)적인 면에서 변화를 일으킨 데 비해, AI 혁명은 혼(soul)적인 면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이고, 더욱 근본적인 변화다. 산업혁명 시기에는 도시화, 계층 분화, 정신적 소외 같은 문제가 발생했지만, AI 혁명은 정체성, 윤리, 신앙, 교육, 인간관계 전반을 흔들고 있다. 우리가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등 인간 삶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다시 던져지는 것이다.

산업혁명은 18세기 중반부터 100년 넘는 기간 동안 진행되었다. 이 기간 아버지 세대는 큰 변화를 하지 않아도 됐고, 아들 세대가 새로운 기술을 습득해 변화에 적응하는 식의 대응이 가능했다. 그러나 AI는 이보다 훨씬 빨리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최근에 세계적인 IT 기업의 최고기술책임자(CTO)가 그 기업의 개발 업무의 95%가 AI로 대체될 거로 이야기했고, 기간은 앞으로 5년 이내가 될 것이라 예상했다. 이것은 현재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많은 기업이 신입 사원을 뽑지 않으려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이유는 AI가 신입 사원이 할 수 있는 업무를 대체하는 게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람들의 고용 불안이 증가하고 있으며, 사회 전체적으로 AI 혁명 시대 속에서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스트레스가 커지고 있다.

영역 주권을 뛰어넘는 'AI의 파급력'



**“AI 시대에 세상을 비판 없이 따르거나
두려움에 피하는 대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교차영역적으로 사고하고, 실천할 때
교회는 복음 선포하는 공동체 사명을 감당할 것이다.
교회는 AI 시대의 파수꾼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카이퍼(Kuyper, 1837~1920)가 말한 ‘영역 주권(sphere sovereignty)’은 각 영역이 하나님 앞에 자율성을 지닌 채 존재하지만, 그리스도의 주 되심 아래 함께 놓여 있어야 한다는 세계관적 틀이다. 그러나 AI는 이 영역들의 경계를 허물고, 정치와 경제, 문화와 윤리, 심리까지 동시다발적으로 침투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24년 노벨화학상 수상 기술인 ‘알파폴드(AlphaFold)’는 AI가 생물학, 화학, 의학, 데이터 과학을 동시에 융합함으로써 새로운 문제 해결 방식을 보여주었다. 이처럼 AI로 인한 변화는 기술적 융합을 통해서 기존의 사회 질서, 인간관계, 가치체계 등 우리 삶의 거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따라 기독교 세계관은 단일영역 중심이 아닌 교차영역적(Cross-Sphere) 사고와 그에 합당한 실천을 요청받고 있다.

교차영역적 도전 앞에서 우리가 여전히 “내 영역이 아니다”, “기술은 과학자의 몫”이라고 말한다면, 신앙은 점점 더 변두리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 오히려 교회는 이 복잡한 현상들을 해석하고 조망할 수 있는 시선과 언어 능력을 길러야 한다. 이는 목회자나 교회 리더십에게만 주어진 과제가 아니다. 이

시대 모든 성도가 함께 고민하고 훈련해야 할 시대적 요청이다. 복음은 모든 시대와 모든 문제에 대해 응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확신이 필요하다.

교차영역적 실천의 모델

윌리엄 윌버포스(Wilberforce, 1759~1833)는 영국의 정치가이자 복음주의 신앙인이었다. 그는 영국 국회의원이었지만, 경제 구조에 깊이 얽혀 있던 노예무역을 철폐하기 위해 평생을 헌신했다. 당시는 영국 경제의 5% 이상이 노예무역과 연결되어 있었고, 왕과 귀족들도 막대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던 영역이었다. 그런데도 윌버포스는 복음에 기반한 교차영역적 시선으로 이 문제에 응답했다. 그는 클레팸 공동체(Clapham Sect)와 함께 청원, 언론 활동, 시민 캠페인을 40년 넘게 지속하며 여론을 변화시켰고, 마침내 1807년 노예무역 금지법에 이어 1833년 노예제 폐지법을 통과시켰다. 그는 자신의 정치적 위치를 넘어 경제, 도덕, 문화 전반에 영향을 주는 교차영역적 사명을 감당했다.

윌버포스의 삶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에게도 도전이 된다. 복음은 사회를 바꾸는 동력이 될 수 있으며, 크리스천의 사회 참여는 단순한 봉사를 넘어 근본적인 구조 개혁까지 확장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크리스천이 사회 전반의 모든 영역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야 하는 이유다.

오늘날 AI 역시 특정 전문가의 영역이 아니다. AI 시대의 인간성, 윤리, 공동체, 신앙 모두가 교차된 문제이기에 우리도 월버포스처럼 응답해야 한다. 크리스천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영역에서 ‘AI 시대에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고민하고 실천해야 할 시점에서 있다.

구체적 실천 과제

구체적인 실천 과제 세 가지가 있다. 첫째, 영역을 넘어서는 인식 확대가 필요하다. AI는 다영역적 도전이다. 신앙인들도 기술과 윤리, 사회 문제를 함께 바라보는 시선을 배워야 한다. 신앙과 과학, 윤리와 기술을 통합적으로 바라보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다음세대와의 접촉을 유지해야 한다. AI에 익숙한 청소년들에게 그들의 언어와 관심사로 다가가는 복음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다음세대와의 접촉을 잃게 된다. 디지털 제자훈련, 신앙적 AI 리터러시 교육 같은 새로운 목회적 전략이 필요하다.

셋째, 지속적이고 공동체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윌버포스가 클레팸(clapham) 공동체와 뜻을 합하고 40여 년에 걸쳐 사회 변화를 이끌었듯, 오늘의 교회도 AI 시대 속에서 공동체적으로 지속적인 대응과 캠페인이 필요하다. 교회는 일회성 목소리가 아니라 시대를 관통하는 윤리적 나침반이어야 한다. AI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발전할 것이다. 교회는 이에 발맞춰 지혜롭게 대응하는 지속 가능한 영적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AI 시대는 기회이기도 하다. AI로 인한 정체성의 혼란과 정서적인 불안감을 느끼는 젊은 세대에게 교회가 기술을 뛰어넘는 진리를 품고 있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고귀함을 제대로 전파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큰 부흥을 허락하실 것이라고 믿는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지 기다리겠다”(함 2:1).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다. 1787년 10월 윌버포스는 노예무역 근절과 관습개혁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의 삶 전체를 통해 응답했다. 그렇듯 AI 시대에 세상을 비판 없이 따르거나 두려움에 피하는 대신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교차영역적으로 사고하고, 실천할 때 교회가 복음을 선포하는 공동체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교회는 AI 시대의 파수꾼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끝).

맛있는 말씀 해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빌 4:13)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이 면접을 앞두고 이 말씀을 붙든다.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이 투자 설명서를 내밀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마라톤 출발선이나 운동경기에서 유니폼에 이 말씀을 새기기도 하고, 크리스천 부모들은 자녀의 수능시험이나 유학 준비를 앞두고 이 구절을 붙들고 기도한다.

이 모든 장면은 한 가지 공통된 인식을 보여 준다. <빌립보서> 4장 13절이 오늘날 많은 이들에게 ‘성공’과 ‘자기 성취’를 위한 응원 구절처럼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본문은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아름다운 고백이다. 그러나 이 말씀이 “모든 일에서 성공하게 해주신다”는 뜻은 아니다.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는 식의 긍정적 사고방식이나 ‘성공 신앙’의 근거로 사용되기에, 이 말씀의 본래 의미는 훨씬 더 깊고 오호려 정반대의 맥락에서 있다.

본문을 담고 있는 <빌립보서> 4장의 문맥을

살펴보면, 바울은 지금 어떤 외적인 성취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결핍과 어려움 속에서도 자족하는 삶의 태도를 고백하고 있다. 바울은 11절에서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라고 말하며, 풍요나 궁핍, 배부름이나 배고픔에 상관없이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평안을 말한다.

“내가 궁핍하므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빌 4:11)

그러고 바로 이어지는 고백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모든 것’은 ‘원하는 바를 다 이룬다’는 뜻이 아니다. 사실 바울은 단지 ‘불편한 상황’을 이겨냈던 것이 아니다. <고린도후서> 11장을 보면 그는 매를 맞고, 돌에 맞고, 감옥에 갇히고, 바다에 빠지고, 굶주리고, 헐벗고, 강도와 동족 및 거짓 형제의 위협에 시달리며, 죽을 뻔한 일을 여러 번 겪는

다. <빌립보서>를 쓸 당시에도 그는 감옥에 갇혀 있었다.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편지를 쓰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말은, 내가 원하는 일을 모두 이룰 수 있다는 선언이 아니라 그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주어진 삶을 감당할 수 있다는 고백으로 볼 수 있다. 어떤 영웅적 성공이 아니라, 고통과 결핍, 실패의 현장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자족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신앙의 외침인 것이다.

본문의 중심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있지 않다. 핵심은 ‘능력 주시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이다. 바울은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약함 속에서도 주시는 은혜의 힘을 말하고 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말은 바로 그 능력 주시는 주님으로 인해, 오늘의 괴로움도, 내일의 불확실함도 감당해낼 수 있다는 깊은 신앙의 고백이다. 우리 역시 본문을 ‘성공의 보증서’로 사용할 것이

아니라, 시련과 부족함 속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해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능력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외을 때 그 고백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게 해주소서”라는 주문이 아니라 “주님, 어떤 상황이든 제가 믿음으로 살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라는 고백이어야 할 것이다. 이 말씀이야말로 ‘무엇이든 이룬다’가 아니라, ‘무엇이든 감당하게 하신다’는 복음의 능력인 것이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빌 4:13).

바울의 이 고백이 힘들고 지친 일상 속에서 우울하거나 절망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길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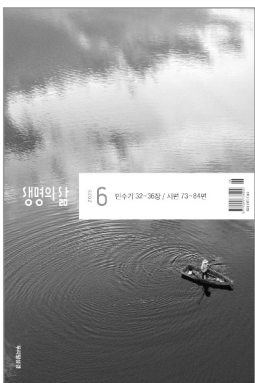
오은규 목사
(성동광진공동체)

<생명의 삶> QT 프리뷰(Preview)

고난의 현장에 하나님 초대하기

6월 23일~6월 29일

<시편> 78:40~83:18



목상포인트 1:

죄인 된 인간은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께 반항하고 하나님 존재를 의심하려는 본성이 있다. 이를 극복하는 방법은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다. 은혜를 잊은 이스라엘과 자기 백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사랑을 묵상하자.

78편: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거둬 반역하고 시험해 하나님을 노하시게 했다. 기이한 표적과 징조로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은혜를 잊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양 떼같이 인도해 약속의 땅에 거주하게 하셨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에서도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우상을 섬겼다. 진노하신 하나님은 성막에서 떠나시고 그들을 대적에게 넘기셨다. 하지만 자기 백성의 죽음과 고난을 보시고 다시 일어나 대적을 물리치셨다. 하나님 사랑은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시기까지 멈추지 않는다.

목상포인트 2: 절망의 상황에서 성도는 기도해야 한다. <시편> 기자는 고난의 현장에 하나님을 초대하는 기도를 드린다. 이스라엘의 구원은 하나님의 명예와도 연결된다. 절망의 상황에서 <시편> 기자가 드린 믿음의 고백은 무엇인지 묵상하자.

79편: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함락되고 파괴될 때의 상황을 배경으로 지은 시다. <시편> 기자는 이방 민족의 침략으로 성전이 더럽혀지고 백성이 수치를 당한 일을 한탄한다. 그는 조상들의 죄를 기억하지 마시고 주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위해 자신들을 구원하시길 간구한다.

80편: 고난의 상황에서 회복을 간구하는 시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애굽에서 가져다가 가나안에 심으신 포도나무와 같았다. 뿌리를 깊이 내리고 번성했으나 하나님은 그 담을 허셔서 대적에게 멸망당하게 하셨다. <시편> 기자는 주님 얼굴의 광채를 비취 구원하시길 간구한다.

목상포인트 3: 모든 나라,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소유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이유다. 불의한 재판관으로 인해, 강한 원수로 인해 <시편> 기자가 믿음의 입을 열어 드린 기도는 무엇인지 묵상하자.

81편: 이스라엘의 주요 절기에 부르는 축제의 노래다. <시편> 기자는 백성을 불러 모아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촉구한다. 또한 과거 불

순종을 상기시키며 우상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권면한다.

82편: 통치자와 재판관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약자를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다. 그들이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어둠에서 행하니, 땅의 모든 기초가 흔들린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길 간구한다.

83편: 국가적 위기에서 이스라엘을 건지시길 간구하는 시다. <시편> 기자는 사사 드보라와 기드온 때처럼 대적을 물리쳐 주시길 간청하며, 지존하신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길 소망한다.

- 적용을 위한 가이드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원망을 반복하는 영적 기억 상실증을 경계하자. 구원받은 성도답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길 힘쓰자. ▶<시편> 기자처럼, 내가 처한 고난의 현장에 하나님을 초대하는 기도를 드리자. ▶통치자와 재판관이 사람의 낯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땅을 바르게 이끌도록 중보하자. ▶하나님이 내게 주신 힘과 권력은 연약한 자를 위한 것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자. ▶세상의 강한 자들 사이에서 그들보다 강한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히 행하자.

/ <생명의 삶> 편집부

온누리가 함께 하는 기도

이주영 대리의 회복을 위해!

저의 직장 동료 이주영 대리를 위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주영 대리는 오랜 시간 병원 치료를 받았지만 차도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최근 병세가 악화되어 병가를 내고 휴직 중에 있습니다. 현재 병원에 입원 중이며, 복수가 심하게 차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치료를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지쳐 있습니다.

또한, 이주영 대리의 아버지께서는 2년 전, 갑자기 돌아가셨으며 지난달에는 위암 투병 중이시던 어머님께서도 소천하셨습니다. 이주영 대리는 육체적으로도 심적으로도 너무나 힘든 시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이주영 대리가 입원 중인 병동은 면회가 어려운 상황이라서, 설교 말씀과 위로가 되는 찬양 링크를 전하며 마음을 나누고 있습니다. 회사 신우회에서는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희망이심을 믿습니다.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주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습니다. 그 기억이 이주영 대리의 연약한 육신 위에도 임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동료가 하나님의 평안과 위로를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 주님께서 회복의 손길로 친히 만져 주시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 김호중 다락방장(서초D공동체)

청년벤처포럼 ‘어!벤처스’ 참가자 모집

6월 26일~7월 25일 오후 6시까지 서류 접수

2025 청년벤처포럼 ‘어!벤처스’ (이하 ‘2025 어!벤처스’) 참가자를 모집한다. 어!벤처스는 혁신적인 기술과 비즈니스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청년들을 위한 벤처대회다.

2025 어!벤처스 참가자 모집 및 서류 접수는 6월 26일(목)부터 7월 25일(금) 오후 6시까지다. 이후 7~8월 심사 및 선발을 거쳐, 9~11월 비즈니스 리더와의 멘토링을 하고, 11월 29일(토) 최종결선 대회를 치른다.

‘2025 어!벤처스’ 지원 자격은 법인 설립 5년 미만의 혁신 스타트업 및 예비창업자(비영리법인 가능)다. 팀의 핵심 멤버 1명은 기독교인이어야 하고, 서류를

접수할 때 교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참가신청은 ‘청년벤처포럼 어!벤처스’ 홈페이지(ventures.kr)에서 하면 된다.

이번 어!벤처스에서 우승 기업에게는 공동주관기관인 ‘씨엔티테크’로부터 1억 원 상당의 투자유치 기회와 부상을 준다. 부상은 총상금 3천만 원 상당의 상금(그랑프리 1천만 원), ‘크리스천 CEO 리더십스쿨’ 전액 장학금이다.

한편 2025 어!벤처스 사전설명회가 6월 26일(목) 오후 6시 30분 성수동 심센터에서 열린다. 상세한 대회 정보를 들을 수 있고, 멘토들과 네트워킹도 가능하다. 참가접수는 어!벤처스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문의: venture2impact@gmail.com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FA 24기 청년 선교사 모집

7월 6일까지 서류 접수

FA(Frontier Agency movement) 24기 청년 선교사를 모집한다. 7월 6일(일)까지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7월 19일(토)과 26일(토) 면접을 하고, 최종 FA 24기 청년 선교사를 선발한다.

FA 24기 지원 자격은 온누리교회 등록 성도(1년 이상)이자 대학청년부 공동체 소속(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35세 이하 미혼(89년생 8월 이후 출생), 세례 교인,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한다. 참가신청은 하단 QR 코드로 하면된다. FA 24기 청년 선교사 신청서는 이메일(fa@tim.or.kr)로 보내면 된다. 구비서류는 FA 선교사 지원서 1부, 추천서 3부(온누리교회 목회자, 공동체 리더십, 지인), 가족관계증명서, 최종학력증명서, 건강검진서다.

FA 24기는 8월 12일부터 9월 5일까지 4주 동안 국내 합숙 훈련을 하고, 9월 23일부터 2026년 2월 3일까지 18주 동안 현지사역을 한다. 파송 국가는 네pal, 일본, 인도네시아다. 문의: 070-4464-8105 / 홍하영 기자



온누리공동체 상반기 종강예배

서빙고			
날 짜	공동체	장 소	시 간
6월 21일(토)	신용산	남한산성목상의집	09:00
6월 21일(토)	고양은평	예수인교회	17:00
6월 21일(토)	김포	롯데시네마 파주아울렛점	14:00
6월 25일(수)	서대문	롯데시네마 합정	18:40
6월 25일(수)	OCC	롯데시네마 용산 8관	19:30
6월 25일(수)	이촌	롯데시네마 용산	19:30
6월 25일(수)	여의도	롯데시네마 영등포	20:00
6월 26일(목)	가정사역	롯데시네마 용산 8관	19:00
6월 26일(목)	양천	롯데시네마 신도림	20:00
6월 26일(목)	마포	롯데시네마 용산	19:30
6월 27일(금)	광명	롯데시네마 광명아울렛	19:30
6월 27일(금)	노원	롯데시네마 노원	09:30
6월 27일(금)	천양사역	롯데시네마 용산 1관	18:50
6월 27일(금)	중종로	롯데시네마 명동메비뉴엘점	19:00
6월 27일(금)	관악금천	롯데시네마 서울대역	19:00
6월 27일(금)	이수	롯데시네마 서울대 입구	19:30
6월 27일(금)	특별한초대	롯데시네마 서울대 입구	19:30
6월 27일(금)	동대문중앙	롯데시네마 청량리점	19:30
6월 27일(금)	한강	롯데시네마 용산	20:00
6월 27일(금)	성동광진	롯데시네마 건대입구 10관	20:00
6월 27일(금)	강촌	롯데시네마 용산 8관	21:00
6월 28일(토)	용산	롯데시네마 용산	16:00
6월 28일(토)	일산파주	롯데시네마 파주온정	17:00
6월 28일(토)	성북	롯데시네마 청량리점	17:00
6월 28일(토)	강서	롯데시네마 김포공항	10:00
6월 28일(토)	동작	롯데시네마 영등포	16:00
6월 28일(토)	서빙고	롯데시네마 용산전지랜드 8관	16:00
6월 28일(토)	영등포구로	롯데시네마 신도림 3관	16:00
6월 28일(토)	북누리	롯데시네마 민락점	15:00
6월 29일(일)	S브릿지	롯데시네마 용산	16:30

양재			
날 짜	공동체	장 소	시 간
6월 17일(화)	서초B	기쁨홀	19:30
6월 21일(토)	강남A	롯데시네마 도곡점	19:00
6월 21일(토)	분당B	외부 캠퍼스	10:00
6월 21일(토)	양재A	롯데시네마 도곡점	14:00
6월 22일(일)	하나	JDS홀	13:50
6월 26일(목)	서초C	롯데시네마 도곡점	19:30
6월 27일(금)	경기A	롯데시네마 평촌점	19:30
6월 27일(금)	도곡	롯데시네마 도곡점	19:30
6월 27일(금)	분당A	롯데시네마 성남중앙점	19:30
6월 27일(금)	서초A	롯데시네마 도곡점	19:30
6월 27일(금)	송파A	롯데시네마 롯데타워점	19:30
6월 27일(금)	분당B	롯데시네마 수지점	19:00
6월 27일(금)	양재B	드림홀	19:00
6월 28일(토)	강남B	롯데시네마 도곡점	16:00
6월 28일(토)	강남E	롯데시네마 도곡점	19:00
6월 28일(토)	과천의왕	롯데시네마 평촌점	16:00
6월 28일(토)	서초B	롯데시네마 도곡점	16:00
6월 28일(토)	서초D	화평홀	16:00
6월 28일(토)	송파B	롯데시네마 롯데타워점	14:00
6월 29일(일)	강남C	롯데시네마 도곡점	14:00
6월 29일(일)	하나	롯데시네마 도곡점	17:00
7월 4일(금)	Point5	롯데시네마 도곡점	20:00
7월 5일(토)	강남D	롯데시네마 도곡점	16:00

캠퍼스		
6월 27일(금)	부천 믿음, 화락	롯데시네마 부천점
6월 28일(토)	부천 화평, 소망, 사랑	롯데시네마 부천점
6월 27일(금)	수원 동누리	롯데시네마 기흥AK점 7관
6월 26일(목)	수원 서누리	롯데시네마 기흥AK점 2관
6월 26일(목)	수원 남누리	롯데시네마 기흥AK점 7관
6월 27일(금)	수원 북누리	롯데시네마 기흥AK점 2관
6월 27일(금)	대전 동누리	롯데시네마 대전테크노파크점 8관
6월 27일(금)	대전 서누리	롯데시네마 대전테크노파크점 8관
6월 27일(금)	대전 남누리	롯데시네마 대전테크노파크점 8관
6월 27일(금)	대전 북누리	메가박스 나성점 5층 4관
6월 27일(금)	대전 세종	메가박스 나성점 5층 A동
6월 28일(토)	남양주 연합	롯데시네마 구리아울렛점 3관
6월 27일(금)	인천 사랑	롯데시네마 인천터미널점
6월 13일(금)	인천 온유	롯데시네마 인천터미널점
6월 20일(금)	인천 충성	송도 메가박스
6월 20일(금)	인천 화평	송도 메가박스
6월 20일(금)	인천 화락	롯데시네마 인천터미널점
6월 27일(금)	강동 연합	강동 롯데시네마
6월 28일(토)	양지 연합	롯데시네마 용인역북
6월 24일(화)	영종 연합	메가박스 영종점(운서)
6월 28일(토)	제주 연합	서귀포 롯데시네마

시가 러브소나타
화관 제작을 위한 예배

사론데코팀, 앞으로 3개월 간 제작

시가 러브소나타에서 사용할 화관 제작을 위한 예배를 지난 6월 17일(화) 평택온누리교회 사이닝글로리에서 드렸다. 이날 예배에서는 신동식 목사(평택온누리교회담당)가 ‘작은 헌신을 크게 사용하시는 하나님’ (요 6:9~13)을 주제로 메시지를 전했다. 화관 제작 예배를 시작으로 사론데코팀은 앞으로 3개월 동안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새벽예배를 마치고 화관 제작을 한다.

송헌주 팀장(사론데코팀)은 “화관 제작을 시작하기 전에 예배로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면서 “일본 시가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온전히 부어지고, 이 작은 헌신이 복음의 통로로 사용되기를 바란다”고 소망했다.

/ 박지혜 기자

상반기 순장학교 수료식

서빙고 26개 공동체 84명 수료

2025 상반기 순장학교 수료식이 지난 6월 8일(일) 서빙고온누리교회 시온홀에서 있었다. 서빙고 26개 공동체 84명이 수료했다.

순장학교는 강의와 나눔, 큐티, 아웃리치, 성경수련회 등을 통해서 순장의 자질을 배우고 익히는 프로그램이다. 10주 동안 진행된다.

박성준 순장(여의도공동체)은 “순장학교에서 완벽함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다”면서 “하나님이 사용하실 것을 믿고 순종의 걸음을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2025 하반기 순장학교는 9월 7일 개강한다. 각 공동체의 추천을 받아 참가신청하면 된다.

문의: 010-7736-6130

“한 아이의 세상을 바꾸는 여정”

‘입양·위탁·결연·지원세미나’ 150여 명 참석

‘입양·위탁·결연·지원세미나’가 지난 6월 15일(일) 오후 5시 ‘한 아이의 온 세상을 만드는 사랑의 여정’을 주제로 온누리청소년센터 소극장에서 열렸다. 제이홈사역팀과 울타리사역팀 리더십 및 봉사자, 고아 사역에 관심이 있는 성도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입양·위탁·결연·지원세미나는 이상을 장로 대표기도, 신기섭 목사 설교, 최순영 자매 간증, 제이홈 및 울타리 사역 소개, 신영례 원장(송죽원) 인사, 합심기도, 상담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신기섭 목사는 “우리를 먼저 품어주신 하나님

의 마음을 기억하며 고아를 품는 이 사역에 더 많은 성도가 동참했으면 좋겠다”고 권면했다.

공개입양인이자 입양인 권익활동가 최순영 자매는 “많은 성도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한 생명을 품는 그 사랑의 여정을 시작하기를 바란다”고 소망했다.

오창화 집사(울타리사역팀장)는 “한 아이의 세상을 변화시킴으로 무너지고 깨어진 가정의 상처를 치유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귀한 사역에 함께 해달라”고 당부했다.

/ 홍하영 기자

양재 만남의 잔치							
일시: 6월 22일 15:30 양재온누리교회 드림홀							
강남A 김병진 김해남 이영신	강남C 박미정 성영숙 전경남 전지윤 최희정	강남E 윤은일 이혜령 임재운 전종학 최재석	기나현 김해진 박성우 손아영 유창현 최 훈	구숙자 탁영진	송기일 유승연 이영민 이정환 전영대	이석훈 양재A 곽혜린 김단아 박영은 박형실 유진영 이윤성 정구원 정우철 한종태	양재B 곽정욱 박인진 설종대 조은희

한일청년연합집회 기·도·제·목

- ‘The Way’를 보혈로 덮어주시고, 모든 악한 세력을 결박시켜 주시도록.
- ‘The Way’에서 한일 청년들이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며, 주님의 부르심을 듣도록.
- 한일청년리더들이성령님의기쁨부으심으로교회를이끌어갈축복의세대가되도록.
- ‘The Way’를 준비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고, 이 집회를 통해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준비하도록.
-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을 따라 한일 청년들이 겸손히 섬기며 사랑을 나누도록.
- The Way 관동위원회와 협력 교회들이 연합해 진정한 동역의 기쁨을 누리도록.
- 청년들의 마음에 복음의 열정이 타오르고, 가정과 교회가 회복되며, 열방을 품도록.

〈생명의 삶〉 정기구독 신청

전도콜센터 02-3215-3377 언제든지 달려갑니다

선교지를 위한 기도모임

우측 QR 코드를 찍으면 서빙고와 양재온누리교회에서 진행되는 ‘선교지를 위한 기도모임’ 정보를 확인할 수있다.

■ 새가족 수료 간증



/ 최현화 성도(용산공동체)

믿음과 은혜 전하는 제자

어머니는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시면서 나도 꼭 교회 다니기를 빠짐없이 기도하셨다고 한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함께 교회에 가자고 했다. 아무것도 모르고 막연히 앉아 다 같이 찬송을 부르는데 왜 그런지 찬송가가 귀에 강하게 들리고, 이유 없이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다. 가슴이 뜨거워지고 먹먹함이 느껴졌다. 이 기분을 확인하고 싶어서 그 뒤로 매주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 나는 매주 주일을 기다렸다. 예배드리는 그 시간이 너무 좋았기 때문이다. 주일에 교회 가는 게 나에게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었다. 말씀을 더 많이 알고 싶은 욕심이 생겼다. 그래서 온누리교회 새신자 등록을 하고, 일대일제자양육을 받았다.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게 은혜였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받는 시간이 너무 소중하고 귀해서 눈물이 흘렀다.

그 좋은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누군가와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그래서 오래 해외 생활을 접고 들어와 한국 생활을 시작하는 친언니에게 교회에 같이 가자고 권했다. 믿음과 행복으로 은혜를 많이 받으며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언니도 나와 같은 마음으로 새신

자 등록을 하고, 함께 일대일제자양육을 하고 있다. 언니를 보면 행복하고,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큰 은혜를 느낀다.

교회와 예배를 섬기는 게 뿌듯하고 가슴이 벅차오른다.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나를 다시 한번 발견한다.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에도 도전했다. 기도를 잘할 줄 모르는 내가 새벽기도회에 다니면서 기도하고 또 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해주시는 분이라고 하셨는데 정말로 그 기적을 나에게도 주셨다. 사람에게 지쳐있던 내가 마음을 잘 정리하도록 지혜를 주셨다. 기도응답 덕분에 힘들었던 일들을 잘 정리할 수 있었다. 이 놀라운 경험과 함께 정말 많은 은혜와 믿음으로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를 마칠 수 있었다.

이제는 매일 큐티하며 말씀을 쓰고, 들으며, 기도로 다스릴 줄 아는 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한다. 아직도 많이 부족한 믿음을 하나님이 충분히 채워 주시고, 인도해주시리라 믿는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나를 더 단단하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믿으며 살아가는 내가 될 것을 확신한다.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 듣기를 기뻐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믿음과 은혜를 전하는 제자가 되고 싶다.

■ 104기 서빙고 와이미션 수료 간증



/ 이예원 성도(SNS공동체)

하나님의 시선과 마음으로

지난해 교육대학원 학업을 마치고 한동안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방황하며 불안해하는 시간을 보냈다. 내가 긴 시간 학계에 머물 때 주변에는 직장 생활하며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거나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꾸린 친구들도 있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를 하면서도 세상의 잣대와 내 삶을 비교하며 마음이 조금해지고 길을 잃은 것만 같았다. 불안한 마음으로 취업을 준비하며 서빙고온누리교회 SNS 청년부 예배를 다녔다.

예배드리던 어느 날, 깊은 마음의 찢림과 동시에 확신이 들었다. 방황하는 나에게 하나님이 내가 중학생 때 드렸던 헌신의 기도와 교육 선교로 열방과 복음을 위해 쓰임 받기를 원했던 간절한 마음을 기억나게 하셨기 때문이다. 차갑게 식어버린 비전과 잊고 지냈던 하나님과의 약속을 떠올리며 나의 나약함을 누우쳤다. 열방을 향한 불씨를 품을 수 있도록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려주셨다.

그렇게 와이미션 선교학교에 참여했다. 그 과정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이

열방을 향해 가진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값지고 감사한 시간이었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이었다.

선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된다. 그 사랑이 선교의 기초고, 중심이며, 본질이다. 나는 보호 사각지대에 놓인 선교지 아이들을 위해 교육자로 쓰임 받기를 소망하고 있다.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불가능하고, 무의미한 일임을 와이미션 선교학교에서 배웠다. 하나님이 죄로 더러워지고 굳은 내 마음을 사랑으로 적셔 주시고, 새 생명으로 채워 주셨다. 그 사랑에 반응해서 나라와 민족, 언어와 문화를 넘어 하나님의 증인으로 나아가는 게 선교임을 알려 주셨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두려움이 아닌 믿음으로, 편안함이 아닌 순종으로, 주저함이 아닌 기쁨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하나님의 시선과 마음으로 열방을 품게 해주셔서 감사하다. 여러 모습으로 섬겨 주시고 기도해 주신 분들에게도 감사하다.

■ 무릎선교기도학교 참가자 간증



/ 이영자 권사(가정사역공동체)

무릎선교사의 사명

공동체 사역으로 인해 자주 방문했던 Acts 29 비전빌리지를 이번에는 무릎선교기도학교에서 찾았다. 익숙한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본래의 취지에 맞는 사역팀과 함께해서 그런지 감회가 새로웠다.

Acts29 비전빌리지에서 故 하용조 목사님의 모습을 오랜만에 보니 잠자던 선교 사명이 일깨워지는 것 같았다. 하용조 목사가 연약한 몸으로 인해 선교지에 직접 가지 못하셨음을 아쉬워하시며 선교사님들께 미안하다고 눈물을 흘리셨던 모습이 기억에 깊이 남아 있다. 하용조 목사가 “아파도 멈추지 말라!”며 선교에 대한 열정을 외치는 그 모습은 도전이자 위로였다. 참 감사했다.

이제는 은퇴하신 이재환 선교사님의 설교를 들을 수 있었다. 이 선교사님은 세월의 흐름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모습으로 설교를 하셨다. 이 선교사님을 보면서 ‘선교사란 이런 것이구나, 진정한 선교사의 삶이 이것이구나’를 배울 수 있었다. 이 선교사님은 일생 30배, 60배, 100배 축복을 경험해보지 못했다고 고백하셨다. 그런데 과거나 현재나 변함없으신 모습이야말로 가장 큰 축복 아닌가 생각했다.

이 선교사님이 한 무슬림인의 이야기를 들

려주셨다. “교회가 기도 응답을 잘 받는데는 뭔가 있다”며 찾아왔다고 하셨다. 그 이야기를 들으니 선교의 열매가 느껴졌다. 어떤 성도가 교장 승진을 위해 기도 받고 일주일 만에 실제 승진했다고 말씀하실 때는 모두가 웃음을 터트렸다.

또 이 선교사님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 대한 말씀을 전하시면서 “아마 그분 역시 선교하다 일생을 마무리했을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이 무릎 선교사로서 깊이 공감되었다. 또 “천국은 너희 가운데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와 함께하시리라는 천국 소망을 갖도록 하셨다.

장복순 회장님이 기도회를 인도하셨다. 서유럽의 재복음화를 위하여 뜨겁게 부르짖었다. 이어 이진이 목사가 나라를 위한 소망기도를 인도하셨다. 긍정적인 마음과 비전을 품고 돌아올 수 있었다.

새로운 소망을 가져 본다. 새 하늘 새 땅에서 새롭게 살아갈 날들을 꿈꾸며 더욱 무릎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해야겠다고 다짐한다. 앞으로 더욱 기도의 끈을 놓지 않으려다.

■ ‘LOVE DIVE’ 춘천행 청춘열차 후기



/ 한혜정 성도(LOVE DIVE사역팀)

사랑으로, 기도로, 진심으로

불확실한 미래와 치열한 경쟁으로 꿈꾸는 것조차 두려운 세상에서 크리스천으로서 선한 길을 찾으려고 애쓰는 청년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삶의 방향을 찾고, 힘을 누리며, 하나님의 결실품으로 가꿔지는 여정이 ‘LOVE DIVE 춘천행 청춘열차’다.

지난 5월 31일(토), 따사로운 햇살과 선선한 바람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날씨 속에서 설렘을 가득 안고 춘천행 열차에 탑승했다. 단순한 나들이가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에서 마음을 열어나가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출발선에 함께한 모든 청년의 얼굴에 기대를 품은 미소가 가득했다. 대학청년부 교역자들의 동행은 어색할 수 있었던 청년들의 만남에 신뢰와 안정감을 더해 주었다. 조별미션 수행과 MBTI 소개 활동 등은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하게 만드는 은혜의 통로였다. 같은 공동체에서도 만나기 어렵던 이들이 서로에 대해 알아가고, 다른 교회에서 온 청년들과도 소통하는 귀한 시간이었다. 삶의 자리에서 지치고, 때로는 혼자인 것 같았던 청년들에게 하나님은 온전한 위로로 채워짐을 경험하게 하셨다.

가정사역본부 소속의 ‘LOVE DIVE’는 단순한 만남 이벤트가 아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스스로 먼저 준비되고, 건강한 만남을 통해 진심한 믿음의 가정을 꿈꾸도록 20대 청년들을 지원하는 사역이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신과 상대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랑을 분별하도록 돕는 게 LOVE DIVE사역팀의 사명이다. 우리는 사랑은 준비된 자에게, 하나님의 시간에 찾아온다는 것을 믿는다. 그 준비는 하나님 안에서의 훈련과 교제, 기도와 믿음의 실천을 통해 이루어진다. LOVE DIVE사역팀은 언제나 청년들 곁에서 그들의 오늘과 내일을 함께 응원할 것이다.

이 아름다운 계절에, 찬란한 하루를 함께 보낸 청년들이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서 자신을 귀하게 여기고, 타인을 사랑으로 섬기는 지혜로운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청년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잠기기를 기도한다. 다음 여정에서도 하나님이 써 내려가실 또 다른 이야기를 위해 우리의 걸음은 계속된다. 사랑으로, 기도로, 진심으로.

장로칼럼

새로운 여정의 시작!



심상일 장로
(포틀랜드온누리교회)

장로아카데미 11기 모든 과정을 마무리 하면서 기쁨 베풀고 감사드린다. 지난 2개월을 돌아보면 한 순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 없이 지나간 일이 없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셨기에 모든 과정을 수료할 수 있었다.

장로아카데미를 시작할 때 내 안에 여러 가지 기대가 있었다. 솔직히 두려움과 부족함도 함께 있었다. 과연 내가 하나님의 귀한 직분을 감당할 자격이 있는지, 교회를 섬기는 일에 필요한 지혜와 능력이 있는지 계속 질문을 던졌다. 그런데도 매주 강사님들의 강의와 조별 나눔을 통해 새롭게 깨달은 내용이 분명했다. 그것은 하나님이 부족한 나에게도 귀한 섬김의 자리를 허락하셨다는 사실이다. 이 깨달음이 내게 얼마나 큰 위로와 용기를 줬는지 모른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실수가 없고, 하나님은 부르심을 감당할 힘도 함께 주신다는 진리를 다시금 마음에 새길 수 있었다.

장로아카데미에서 장로가 어떤 마음과 자세로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돌보아야 하는지 깊이 배울 수 있었다. 또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어떻게 드러내야 하는지도 깨달았다. 저명한 목사님, 교수님, 총장님 등 존경하는 강사님들이 들려주신 현장 경험과 풍성한 말씀, 그리고 삶의 지혜가 내게 큰 울림을 줬다. 앞으로 내가 어떤 자세로 신앙과 삶을 이어가야 하는지 방향을 제시해 주었다. 그 모든 배움이 내 신앙생활의 든든한 밑바탕이 될 거라고 확신한

다. 장로아카데미 과정 중에 성경통독이 필수 과제였다. 처음에는 그게 참 부담이었다. ‘12주 동안 어떻게 친구약을 통독할 수 있지?’라는 부정적인 생각이 앞서기도 했다. 하지만 막상 시작하고, 말씀에 집중하면서 내 마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 <시편> 119편을 읽으면서 말씀이 정말 꿀보다 단 것 같음을 느꼈다. 이전에는 느껴보지 못했던 경험이었다. 성경 말씀이 달게 느껴지고, 내 안에 심기는 경험을 한 이후에는 다음날 읽어야 할 말씀을 미리 읽을 정도였다. 그만큼 성경통독이 내게 큰 은혜와 감동을 주었다.

장로아카데미를 마친 감회가 새롭다. 12주 모든 과정이 온누리교회라는 공동체이기에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이 귀한 공동체에 속할 수 있음이 정말 값지고 귀한 축복이었다. 장로아카데미 실행위원으로 섬겨주신 모든 선배 장로님들, 그리고 장로아카데미 11기를 함께 수료한 동료 장로님들께 감사하다. 특히 조별 나눔이 내게 큰 도전과 힘이었다.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면서 경험하는 고민을 서로 나누며 격려하고, 같은 비전을 가진 동역자들과 귀한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었다. 멀리 떨어져 있지만 가까운 시간에 만남을 기대한다.

이제 나는 장로로서 포틀랜드온누리교회를 섬기는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려 한다.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장로아카데미의 강의와 친구약 성경통독을 통해 배우고 깨달은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고, 더욱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려고 한다. 성도들을 사랑으로 보살피는 장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서 언제나 신실하게 응답하는 일꾼이 되고자 한다.

권사칼럼

나는 예수님 태우고 가는 준마



박인숙 권사
(신원산공동체)

길을 가다가 노점상에서 파는 ‘주인님 말씀을 잘 듣자’는 문구가 쓰인 티셔츠가 눈에 들어왔다. 강아지 웃이었다. 요즘 강아지들의 세상이라 이 웃도 팔린다고 했다. 티셔츠에 쓰인 문구처럼 강아지는 주인을 잘 듣는다. 강아지도 주인 말을 잘 들어야 사는 길인 줄 아는데, 우리는 주인이신 예수님 말씀에 얼마나 귀 기울이고 사는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기도의 대상보다 나의 열심과 정성이 중요하다고 잘못 인식하는 이들이 있어서 아쉬울 때가 더러 있다.

지난 가을 끝자락에 공원길을 걷다가 발을 헛디뎈 발목 골절상을 입었다. 반갑스를 하고 당분간 움직이지 말라는 의사의 지시가 있었다. 젊은이들과 달라서 6개월이 지나야 뼈가 붙는다고 했는데, 당장 식사 문제는 물론이고, 화장실 사용 등 일상적인 일들이 멈추니까 답답해서 견딜 수 없었다.

“하나님, 저는 예수님을 태우고 가는 준마(駿馬)인데 어떡해요?”

하나님께 꾸민 말로 기도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얘, 준마는 무조건 빨리 달리는 말이 아니라 ‘준비된 말’이란단다.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지? 네가 가는 그 길이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는 마음을 주셨다.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찬양 가사였다.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는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라는 찬양도 주셨다. 나는 목마른 사슴이 시

냇물을 찾는 것처럼 찬송을 부르고 또 불렀다. 찬양도 하나님 말씀이고, 곡조 있는 기도다. 멜로디보다 중요한 게 가사다. 찬양 가사를 음미하며 빨리 일어나서 한 영혼이라도 전도해야 한다는 중압감보다 주님 임재 안에 거하며 그분과의 친밀함이 더 중요함을 깨달았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무조건 내 열심과 생각으로 달려가면 재갈과 굴레로 단속해야 하는 무지한 말이 된다고 하셨다(시 32:9).

나는 새벽마다 찬송 가사를 음미하면서 찬양을 먼저 올려드렸다. 그러자 내 안에서 회개의 샘이 터져 나오고, 기쁨의 샘도 동시에 터졌다. “저 빨리 달리는 준마가 아니라 뒤뚱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동행하는 준비된 말이 되고 싶어요”라는 고백이 절로 나왔다.

5개월 만에 김스를 풀고 발목보호대를 하고 지팡이를 짚고 교회에 갔다. 교회 본당에서 예배드릴 때 감격을 이루 말할 수 없었다. 다지기 전에는 화면에 보이는 사람들을 보고 ‘누가 왔구나’ 하며 눈도장을 찍기도 했다. 찬양 인도자와 성도들의 모습에 더 주목하기도 했다. 그러나 오롯이 하나님께 집중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니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었다. 그 이후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찬양 일곱 곡을 프린트해서 부르는 게 일상이 되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가 구한대로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셨다. 듣는 마음이란 단순히 귀로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장으로 듣고, 분별하고, 공감하고, 순종하는 태도다.

“사랑하는 내 딸아, 지친 영혼 돌아보고 나의 품으로 안기어라. 네게 그들을 부탁한다.”

예수님이 내게 다시 말씀하셨다. 나는 이렇게 화답했다.

“예, 저는 나이 들어도 예수님을 태우고 가는 준마가 확실합니다.”

신앙에세이



이호준 목사
(양재 차세대 파워웨이브)

우리는 살아온 문화적 배경과 개인의 경험에 따라 자연스럽게 ‘편견’을 갖게 된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기를 포기할 때 편견으로 상대를 쉽게 판단하게 된다. 상대가 내린 선택의 상황과 맥락을 숙고하는 일은 품이 드는 일이기 때문이다. 판단은 쉽지만 사랑은 어렵다. 분리는 쉽지만 하나 됨은 어렵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하나 됨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셨던 것 같다(요 17:23).

얼마 전, 베드로와 고넬료 이야기를 묵상하며 받은 은혜를 나누고자 한다. 베드로는 고넬료를 만나기 전에 여러 기적을 일으켰다. 8년 동안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했던 애니아의 중풍

병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하고, 병들어 죽은 다비다를 믿음의 선포로 살려냈다. 베드로는 신앙으로 불치병과 죽음의 문제를 단번에 극복했다.

이어지는 <사도행전> 10장에서 베드로가 낮 12시에 지붕에 올라가 기도한다. 당시 유대 전통에는 하루 세 번,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관습이 있었다. 베드로 역시 그 관습을 따라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다. 그는 믿음 좋고, 능력도 있으며,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었다. 어느 날, 지붕에서 기도하던 중에 베드로가 환상을 보게 된다. 하늘이 열리고 온갖 종류의 짐승과 새들이 담긴 바구니가 내려왔다. 하나님이 바구니를 보고 있는 베드로에게 “일어나 잡아 먹어라”고 명령하신다. 그런데 베드로의 대답이 뜻밖이었다. 믿음 좋고, 능력도 있으며, 기도도 많이 하는 베드로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한 것이다(행 10:14).

성경은 이런 일이 세 번 반복되었다고 말한

편견을 넘어선 순종

다. 베드로는 자신이 살아온 배경과 경험에서 형성된 편견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세 번이나 거절했다. 그는 믿음과 능력으로 질병과 죽음의 문제를 단번에 극복했지만, 편견의 문제를 극복하는 데는 하나님의 세 번에 걸친 경고와 설득이 필요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한 베드로의 편견에는 율법에 대한 충성심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율법에 순종하려는 그의 진심이 편견이 되었을 때 율법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거절하게 되었다.

이처럼 편견은 우리도 모르게 자기 자신을 준행자가 아닌 심판자로 만든다(약 4:11). 우리를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게 한다. 나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인간의 편견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를 실감하며 두려움을 느꼈다. 어쩌면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어려운 자리는 편견을 넘어서 순종하는 자리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면서 내가 모르게 품고 있는 편견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졌다. 하

지만 편견이란 ‘그것이 편견인지 모른다는 점’에서 스스로 인식하기가 어렵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편견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나는 이 말씀에서 답을 얻을 수 있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롬 13:9).

편견을 넘어서는 것은 우리가 ‘사랑하기를 멈추지 않을 때’ 가능하다. 편견은 우리를 심판자로 만들어 서로 판단하게 하고 분리시킨다. 하지만 사랑은 우리를 준행자로 만들어 서로 관용하고, 연합하게 한다.

편견은 예수님 앞에 선 나의 이웃을 ‘불결하다’면서 그가 깨끗해지면 받아들이겠다는 조건을 달게 한다. 반면 사랑은 예수님 앞에 선 나의 이웃을 존귀하게 대하고, 그의 부족함보다 크신 예수님의 은혜를 믿고 중보하게 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세상의 모든 편견에서 자유를 기원한다.

참 그리스도의 도를 배우고 싶은 예수 제자들은 이 영화를 꼭 봐야 한다.

- 홍정길 목사(남서울은혜교회 원로)

한국 교회가 꼭 배워야 할 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가르치고 싶은 일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영화이다.

- 유기성 목사(예수동행 미니스트리 이사장, 선한목자교회 원로)

한국 교회가 반드시 한번씩 다 봤으면 좋겠다.

- 김상복 목사(할렐루야교회 원로)

'너희의 이웃이 누구인가?'라는 예수님의 질문이 떠오르는 영화였다.

- 장진아 작가(하이킥! 짧은 다리의 역습)

좌우, 세대, 남녀 갈등 최고조의 한국 사회에 꼭 필요한 사랑의 명작

- 최대웅 작가(라디오스타)

내레이션 하정우

6월 25일 롯데시네마 단독 개봉

제작 CGN 배급 커넥트픽처스 12세 이상 관람가

CGN 후원 하나은행 573-910002-67804 (온누리선교재단)

무명 無名